

# ‘사법 남용’ 문서 410건 전부 공개한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를 공개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문서파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며 결의하고, 법원행

## 특별조사 조사 파일중 미공개 228건 추가로 공개 행정처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개…비실명화 중” 법관대표회의, 재차 원문 요구…지난달 98개 공개

정처에 이를 재차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개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잇따라 관련 문건 내용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임법화 추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변호사 단체 등 지방위로 회유·압박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이중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174개 파일을 보고서에 인용하고 나머지 236개의 파일은 인용하지 않았다. 174개 파일 중 90개가 주요 파일로 보고서에 인용됐고, 84개는 그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이 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의 파일과 의혹 등이 제기된 8개 파일을 합한 98개 파일의 원문을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파일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며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 또는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서 열람하는 제한된 방식을 제안했다.

뉴스스

## 인도 여객기 화장실서 태아 시체 발견

인도의 한 여객기 화장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현지 매체 ‘더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태아 시신은 지난 25일 오후 인도 구와하타발 뉴델리행 에어아시아 인디아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태아의 발달 상태로 봤을 때 임신 후 5~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여객기 승무원으로, 그는 이날 오후 3시 반께 여객기가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기내를 살피던 중 화장실에서 휴지에 돌돌 말린 태아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객기 탑승객 중 여성 A씨를 심문 조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의 엄마리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후에 이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19세 태권도 선수로, 코치(여)와 함께 여객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치도 A씨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도 비행 전 작성하는 서류에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고의로 여객기에서 출산하고 유기한 것인지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에어아시아는 성명을 통해 “한 태아가 사망한 채 여객기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경찰 및 공학 의료진은 이 아기가 기내에서 출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그리스 산불로 81명 사망·100명 이상 실종

아테네 북동부 휴양지를 강타한 산불 피해 사망자가 81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소방 대원인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어린이 23명을 포함해 187여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소방 당국은 화염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생존자 구조를 진행하는 한편 사망자 시신 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구조 지원에 나선 한 간호사는 “사람들의 행태가 마치 목탄 같다”며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전역에 강풍이 몰아치면서 지난 23일 아테네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추락가로 급격히 확산했다. 처음 산불이 난 지점은 아테네에서 약 50km 떨어진 키네타 지역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북동부 펜텔리과 라피나에서도 두 번째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60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2007년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산불 이후 그리스 산불 피해의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리아서 최악 IS연쇄 테러…200명 이상 사망

25일(현지시간) 시리아 남부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저지른 연쇄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미들이스트아이(MEE) 등에 따르면 이날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일대에서 IS가 벌인 자살폭탄 테러와 총기 공격으로 200명 이상이 숨졌다. 이는 최근 몇 달새 IS가 실시한 테러 가운데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IS는 이날 연쇄 테러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명을 내고 이 단체에 소속된 ‘군인들’이 스웨이다의 정부, 보안 시설에 기습 공격을 펼쳤으며 배후를 자처했다.

시리아 남부의 한 보건 당국자는 AP통신에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4명으로 증가했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상자 대다수는 IS에 맞서 마을을 지키려던 민간인들이라고 전해졌다.

당초 사망자 수는 27명이라고 알려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명 피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내전감시기구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라미 알말 라흐만 소장은 IS 대원들이 자폭 테러를 벌인 뒤 추가 공격을 가해 남부에 위치한 마을 7곳 가운데 3곳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시리아 국영 TV는 정부군이 테러 이후 스웨이다 동부에서 IS 거점을 표적으로 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아베르 알 예시 스웨이다 주지사는 공격범 하나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달부터 남부 스웨이다, 다라, 쿠네이트라 등에서 IS 연계 반군을 소탕하기 위한 전투를 실시해 왔다.

군은 현재 다라를 탈환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 잇따른 화재에 200개 건설현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의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건설현장에서 계속 발생하자 고용부가 불시점검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인천부평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6월에는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 당했다.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점검에서는 용접·용단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의 화기사용금지 등 화재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시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 박영만 신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 등 작업시 불꽃비산 방지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밝혔다.

뉴스스



폭염 잇은 뗏목타기 체험 26일 지리산 자락인 경남 함양군 휴천면 한남마을 나박정수 앞 연천강에서 피서객들이 뗏목타기 체험을 하고 있다.

## ‘정부24’ 전면 개편…행안부, 오늘 공식서비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서비스를 한 번에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www.gov.kr)를 전면 개편해 27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로운 ‘정부24’는 기존에 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로 나뉘어 제공되던 메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했다. 자주 찾는 서비스를 한 화면에 배치해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개선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을 좌우로 넘겨 자주 찾는 서비스로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음성검색·지문로그인 등 새로운 기능도 탑재했

다.

또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가능한 정부서비스를 22종에서 10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동안 링크로만 제공되던 정책정보를 원문까지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확대 제공되는 서비스는 관세청 ‘수입화물 진행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받은 내용 보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발급’ 등으로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을 위주로 구성됐다. 정책정보는 정부의 4대 주요 정

책정보 포털인 국가정책연구포털, 정책브리핑, 온나라정책연구, G-zone 등과의 연계로 57만여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원문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이나 나의 생활정보 등 주요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문인증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부24’를 이용할 수 있다”며 “PC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지문을 연결시킬 수 있어 PC만 있으면 공공의 제약 없이 어디에서든지 민원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3.0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하시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